

2. 만주-몽골-중국의 3극(Tripolar) 접근: 정복-통치 형태의 진화

2장은 사마천(司馬遷)이 상정했던 유목민 제국(nomadic empire) 대 정주농경 제국(sedentary empire)이라는 양극(bipolar) 접근 배경을 검토한 다음, 한쪽의 본고장이 라고 간주되는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대륙, 투르크-몽골족의 본고장인 몽골초원,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하는 선비-통구스족의 “범-만주권” 등, 동 아시아 3개 핵심 역사공동체 상호간의 작용과 반작용으로부터 결과된 과거 2천 년간 동아시아 제국(empires)의 형성-파괴 현상을 요약하고, 동시에 만주족 왕조 정복-통치 형태의 반복적-진화적 현상을 요약한다.

양극(Bipolar) 체제하의 평화 공존: 화친(和親)/조공(朝貢) 관계의 실체

목축과 사냥을 주로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민간생활이나 군인생활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말 타고 활 쏘는 것은 일상 생활이고, 계절에 따라 천막을 걷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전 부족이 참여하는 사냥을 통해 단체의 일원으로 행동을 통일하고 협조-조정하는 습관을 훈련 받고 몸에 익힌다. 장기간에 걸친 원정을 떠날 때는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가기 때문에 생활동이 중단되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군사행동 자체가 수익성 높은 모험 사업이었다. 전장에서 각 부족은 자신들의 부족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전투를 수행했다. 세습적 귀족제도를 기반으로 조직된 유목민 군대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부족 내의 충성심으로 백인장(百人長), 천인장(千人長), 만인장(萬人長)과의 유대를 공고히 했다. 유목국가는 전 부족의 구성원이 총동원되는 개병제(皆兵制)를 효과적으로 유지했다.¹

유방(劉邦)이 한나라를 세우기 3년 전인 기원전 209년, 목돌(冒頓 r.209-174

¹ 진(秦)과 전한(前漢)은 전국의 모든 건장한 남자들을 2년간 군대에 징집했다. 그러나 동원된 농민들이 전문 전투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훈련 기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장기전에서는 전문 용병을 써야만 했다. 서위(西魏 535-56)의 우문태(宇文泰)는 관중(關中)의 터키-티베트 부족과 변방 한쪽을 동원해 선비족 군사력을 보충하려고 550년에 부병(府兵)제도를 창설했다. 수-당이 이어 받은 이 부병제도는 정해진 군호(軍戶)에서 징집된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할 장비와 먹을 양식을 균전제(均田制)로 할당 받은 토지에서 직접 조달하고, 세금을 탕감 받고, 은퇴할 연령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평생 전문직 군인으로 복역을 하는 것이다.

BCE)은 흉노 부족들을 통합하여 몽골 초원에 강력한 유목 제국을 수립했다. 목들이 처음으로 선우가 되었을 당시에는 서 만주 동호의 세력이 절정에 달했었기 때문에, 자주 흉노의 땅을 침범했었다. 하지만 목들의 등장으로 상황은 곧 역전되었다. 목들은 기습 공격을 하여 동호를 복속 시켰다.²

기원전 200년, 한 고조(r.206-195 BCE)는 흉노를 공격했다. 목들은 평성(平城)에서 고조의 군대를 포위했으나, 자신이 호의를 베풀면 그 대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유방이 달아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혼쫓이 난 유방은, 기원전 198년, 목들과 형제지간임을 선언하면서, 동생으로서 형님인 선우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온갖 호화 사치품을 선물로 주고, 현금, 비단, 명주솜, 술, 쌀, 등 막대한 량의 공물을 제공하고, 또 보조금 성격의 국경 무역(關市)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흉노와 화친(和親)관계를 맺었다.³ [A.2.]

전한의 무제(r.140-87 BCE)는 화친 정책에 수반한 막대한 비용과 굴욕감을 참지 못하여, 기원전 133년에 화친정책을 폐기하고, 117년에는 흉노를 공격하여 오르도스 초원으로부터 축출했다. 처음에는 흉노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얼마 못 가 형세가 역전되었고, 무제 말기에는 수세로 전환 되었다. 기원전 89년, 무제는 윤대(輪臺)의 둔전(屯田) 문제와 관련해서 마침내 흉노와의 전쟁을 포기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사마천은, 전한의 경제가 쇠퇴하고, 관료의 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이 모두 무제의 군사 활동 탓이라고 비난을 했다.⁴

² Yü (1986: 436), Lattimore (1961: 334) 참조. 목들의 부친 두만은, 몽념이 이끄는 진시황의 군대에 쫓겨 오르도스(河南) 초원으로부터 몽골 초원으로 달아났었는데, 목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통치자가 되었다.

史記 卷第一百十 匈奴列傳 第五十 匈奴單于...頭曼不勝秦北徙...單于有太子冒頓...是時東胡疆盛 聞冒頓殺 父自立...冒頓...遂東襲擊東胡...大破滅

³ 고조가 공주를 목들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여(呂雉 r.195-180 BCE) 황후는, “제게는 태자와 외동딸 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딸을 흉노에게 보낼 수 있습니까?”라며 밤낮으로 울부짖었다. 유방은 이를 측은히 여겨, 황족 중 다른 공주를 택해 자신의 맏딸로 입양한 다음 목들에게 시집을 보냈다. Jagchid and Symons (1989: 142) 사기 유경열전(劉敬列傳) 인용. 史記 卷第一百十 匈奴列傳 第五十 高帝先至平城...冒頓...四十萬騎 圍高帝...使劉敬結和親之約... 奉宗室女公主爲單于閼氏 歲奉匈奴 絮繒酒米食物各有數 約爲昆弟以和親

⁴ Jagchid and Symons (1989: 62-3) 참조.

무제의 공격적인 정책이 폐기되고 한참 후인 기원전 54년에, 흉노는 한족과의 의례적인 조공 관계를 수용하였다.⁵ 당시 소위 “조공 관계”란 단지 이름뿐인 상징적 복속(服屬) 관계로, 실질적인 의미 에서는 화친 관계와 그 내용이 다를 바 없었다. 이는 복속(天子宗主國-諸侯屬國), 신종(臣從)의 예(禮), 책봉(冊封), 조공(朝聘貢獻), 하사(答禮下賜) 등과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 포장된 갈취 관계이었다. 한족 조정에 대한 흉노-선비 등 이민족의 갈취 행위는 화친(和親)정책 혹은 조공(朝貢)관계 등과 같은 표현으로 포장되었던 것이다. 한족 지배자들은, 실질적으로 공물을 갈취하러 오는 이민족 사절을 외형상으로 마치 속국에서 오는 조공사인 것처럼 꾸미면서, 이념상으로 자기만족을 하고, 한족 사관(史官)들은 중국 중심의 허구적 세계 질서를 창작할 수 있었다.⁶ 이것이 바로 사마천(司馬遷 c.145-86 BCE)이 상정하는 유목민족 대 정주-농경 한족이라는 양극 체제의 본질인 것이다.

흉노 군대의 숫자가 약탈을 자행 해 한족 조정을 겁주기에는 충분했지만, 중국 전역을 정복하여 통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흉노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륙을 정복하려 들지 않았다.⁷ 당시 흉노는 정주 농경지대를 점령하고 통치를 할 관료 조직도 없었다. 흉노는 수적인 열세와 관료 통치조직 부재라는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또 기동성을 잃지 않으면서, 중국을 착취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막대한 공물을 빼앗아 내고, 한족의 저항 의지를 제거하는 최상의 도구가 바로 한족 조정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라 믿었다. 평화 협정의 잣은 파기는, 갈취 물자의 량을 늘리려는

⁵ “조공관계”를 수립한지 20여 년이 지난 기원전 33년, 전한 조정은 궁녀들 중 5명의 여인을 뽑아 흉노 선우에게 바쳤다. 그들 중 왕소군(王昭君)은 선우의 두 아들을 낳았다. 그 선우는 기원전 31년에 죽었고, 그녀는 흉노의 관습에 따라 새로운 지배자의 아내가 되어 다시 두 명의 딸을 낳았다. 그녀는 중국 문학에서 전설적인 미인이 되었으며,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다.

⁶ Barfield (1989: 248) 참조. 한서(漢書)를 보면 가의(賈誼)가 한 문제(文帝 r.180-157 BCE)에게 “지금 흉노는 교만을 떨며 쳐들어와 노략질을 합니다. 흉노의 모욕적 행위는 극치에 달합니다. 그러나 조정은 매년 금, 비단, 자수 직물, 공단, 등을 그들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랑캐가 명령을 하며 뒷자리에 앉아 주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천자는 신하의 예를 갖추어 공물을 바치고 있는 꼴입니다” 라고 말 하였다. Jagchid and Symons (1989: 15, 55) 참조.

漢書 卷四十八 賈誼傳 今匈奴...侵掠...而漢歲致金絮采繒以奉之 夷狄徵令 是主上之操也 天子共貢 是臣下之禮也

⁷ Barfield (1989: 91) 참조.

책략이었다. 일찍이 목들은 평성에서 한 고조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유방으로 하여금 계속 신생 제국을 통치하면서 자신에게 막대한 공물을 바치게 만들었다. 중국대륙을 직접 경영한다는 고생을 안 하면서 물질적 풍요만을 즐기기로 했던 것이다.

그 후, 수많은 한족 왕조가 무력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유목 세력에게 조공을 바쳤다. 한족 조정은 "신중히 선택된 용어와 조공이라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포장을 하여 유목 국가에 대한 보상을 숨겼지만, 실제로 정착-농경 국가는 평화 공존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래도 군사적 해결책 보다는 공물을 바치고 국경 무역을 제공하는 편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셈이었다."⁸

3극간의 작용과 반작용: 동아시아 제국(empire)의 형성과 파괴

역사적으로 바이칼 호수 주변 초원은 토착 흉노(돌궐)족과 서 만주로부터 간헐적으로 대량 유입 되는 선비(동호)족의 각축장이었다.⁹ 기원전 209년경, 돌궐 부족들은 중앙집권적인 유목제국을 수립 했고, 강성했던 서만주 초원의 선비족까지 복속시켰다. 하지만 기원 후 47년, 흉노 제국에 내란이 일어 나, 몽골초원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다. 덕분에 요서 초원지대의 오환과 선비는 제일 먼저 흉노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화제(r.88-105) 즉위 직후인 89-93년 기간 중, 선비-남흉노-후한의 연합군은 오르콘 지역의 북 흉노를 섬멸했다. 흉노 중 일부는 계속 서쪽으로 달아나 발카하쉬와 아랄 초원지대를 경유해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에까지 이르렀다. 이들 서방으로 달아난 흉노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그 후손들이 "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 374년경에 볼가강과 돈강을 건너 로마제국을 공격 했다.

서 만주 요서 초원의 동호 선비족은 흉노 제국이 내란으로 와해되자 독립을 되찾고, 잔존 북 흉노족 10여 만 호와 그들 영토를 흡수 병합하였다. 잔류한 흉노족들은

⁸ Jagchid and Symons (1998: 116) 인용.

⁹ 흉노는 중세 터키(突厥)족의 조상이었고, 터키어의 초기 형태 언어를 사용했다. 몽골어에 들어있는 수많은 터키 차용어의 존재는, 언젠가 몽골의 언어적 조상이 돌궐족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반면, 퉁구스어는 터키어와 유사한 어휘가 거의 없다. Janhunen (1996: 172, 183, 186), Ostler (2005: 140) 참조.

스스로 선비라 칭했다.¹⁰ 북 흉노 고지(故地)까지 점거하게 된 선비족들은 2세기 중, 단석괴(檀石槐 r.156-80)의 영도 하에, 짧은 기간 이나마 초원의 대제국을 이룩해 흉노 제국을 대신했었다.¹¹

선비족이 분열되고 쇠약해진 180-402년 기간 중에 강력한 돌궐 통일 세력의 등장은 없었다. 402년부터 552년까지 150 년간, 바이칼 주변 초원지대는 다시 한번 서만주 선비족들이 몰려 와서, 쉐룬(社崘 r.402-10)을 시조로 하는 유연(柔然/蠕蠕) 제국을 세우고 지배를 했다. 탁발(拓跋) 선비족에게 쫓겨 본의 아니게 막남(漠南)을 거쳐 막북(漠北)으로 이주해 온 유연 부족은 몽골족과 마찬가지로 서 만주에서 유래한 종족이었다.¹² 하지만 유연 제국은 당시 북 중국을 지배하던 서만주 출신 탁발선비 정복왕조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었고, 553년에는 동 돌궐(553-630) 제국으로 대체되었다. 유연의 선비족들은 서 만주로 달아나거나, 살아 남기 위해 자신들을 돌궐족이라 불려야 했다.

¹⁰ Barfield (1989: 87) 참조. 후한서는 177 년에 올려진 상소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북)흉노가 달아난 이후, 선비 무리는 강성하게 되었다. 이전에 흉노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점거하고서 10 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며 큰 소리를 치는데, 정제된 금속과 연철(鍊鐵)도 이 도적들 손에 들어가있다. 한족 이탈자들은 선비에게로 달아나 모사 노릇을 한다. 선비족 무기는 흉노보다 한층 날카로워졌다." Yü (1986: 445) 인용.

後漢書 卷九十 烏桓鮮卑列傳 第八十 鮮卑者亦東胡之支也...其言語習俗與 烏桓同... 自匈奴遁逃 鮮卑強盛 據其故地 稱兵十萬...精金良鐵皆為賊有 漢人逋逃為之謀主 兵利馬疾過於匈奴 和帝永元中...擊破匈奴 北單于逃走 鮮卑因此轉徙據其地 匈奴餘種留者尚有十餘萬落皆自號鮮卑

¹¹ Barfield (1989: 86-87), Yü (1986: 445-6) 참조. 후한서 185 년 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선비들이 걸핏하면 국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평화스럽게 지내는 해가 거의 없다. 그자들은 중국의 힘을 존경하거나, 관용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경 시장에서 교역을 할 때만 진귀한 재화들을 값싸게 얻기 위해 복종을 하는체하며 나타난다. 그들은 교역으로부터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을 손에 넣자마자 본성을 나타내 해를 끼친다."

後漢書 卷四十八 列傳第三十八 鮮卑...數犯障塞...唯至互市乃來靡服 苟欲 中國珍貨...計獲事足 旋踵為害

後漢書 卷九十 烏桓鮮卑列傳第八十 桓帝時鮮卑檀石槐者...勇健有智略...盡據匈奴故地...從右北平而東至 遼東接夫餘濊貊二十餘邑為東部...從上谷以西至敦煌烏孫二十餘邑為西部 各置大人主領之

¹² 유연의 지배자들은, 흉노-돌궐 전통으로 볼 수 있는 칭호인 선우(鮮于) 대신에, 몽골식 칭호인 "칸"과 "카간"을 사용하였다. Barfield (1989: 120-3) 참조.

630년에 당 태종에게 멸망 당한 돌궐족은, 50여 년이 지난 682년에 동 돌궐(682-741) 제국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60여 년 후, 내란으로 위구르 돌궐 제국(744-840)이 등장하여 840년에 키르기즈 돌궐 족에게 멸망될 때까지 100여 년간 존속했다. 그 후 360여 년에 걸친 (통일 세력이 부재하는) 공백기를 거쳐, 흉노-돌궐족의 본고장은 거란 선비족의 별종인 실위 몽골족 출신의 징기스칸에 의하여 1206년에 정복 통일되어 "몽골"이란 명칭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다. 몽골 제국은 당시 동 만주 여진족이 세운 북 중국의 정복왕조 금(金) 나라를 멸망시켰고, 근본이 같은 거란 선비족을 완전히 흡수-동화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내-외 몽골 지역의 종족적-언어학적 구분을 아주 애매 모호하게 만든 작용-반작용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 대륙에서 한족 서진(西晉 265-316)이 망하고 서만주 출신인 모용선비(慕容鮮卑) 전연(前燕 337-70)이 352년에 북 중국을 점령하기까지는 35년이 걸렸다. 전연 멸망 후, 명실상부한 첫 번째 만주족 정복국가인 탁발선비 북위(拓跋北魏 386-534)가 439년에 북 중국을 통일하기까지는 69년이 걸렸다. 하지만 소위 5호(匈奴/鮮卑/羯氏/羌) 16국이라는 시행 착오 혼란기간(304-439)은 135년이나 지속되었던 것이다. 북위가 망한 후, 서위-북주를 거쳐 수 왕조(581-618)가 589년에 중국대륙 전체를 통일 하기까지는 55년이 걸렸다. 당(618-907)이 망하고 나서 서만주 선비족 후예인 거란족의 요 왕조(遼 907-1125)가 936년에 북경 주변 북중국을 점령하기까지는 29년밖에 안 걸렸지만, 소위 5대(代) 10국이라는 혼란기(907-79)는 72년이나 지속되었다. 하지만 요 왕조는 만주 본토에서 동부 만주 출신인 여진족의 금 왕조(1115-1234)에 대체되었고, 여진족은 1141년에 회수(淮水) 이북을 모두 차지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복왕조 수립의 비결이 만주족 모두에게 완전히 습득되어 "5호 16국" 혹은 "5대 10국" 이 라는 명칭의 시행착오 기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북송(960-1126)과 남송(1127-1279)은 모두 요-금 정복왕조에게 (동생/조카/신하로서의 예의를 지키며) 조공(歲幣/文書稱貢)을 바쳤다. 범-만주 금 왕조는 1234년에 몽골에게 멸망 당하고, 원 제국 (1206-1368)은 남송을 정복하여 1279년에는 중국 대륙을 완전 통일한다. 한족 명 왕조(1368- 1644)는 몽골 원을 대체 하지만 만주족 청(1616-1911)에게 1644년에 멸망 당한다.

목들의 흉노 제국이 출현하는 기원전 209년부터 건륭제가 서거하는 1799년까지의 2천여 년간, 위에 열거한 핵심적 역사적 사실에 연관된 반복적 행태와 진화적 추세를 분석 해 보면, 새로이 정립된 만주의 개념과 3국-분석 틀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의 3국-분석 틀은 1799년 건륭제(r.1735-96)의 서거를 중점으로 그 설명-예측력을 상실 하게 된다. 서구 열강의 세력이 급격히 팽창하는 19세기 초를 기점으로, 구질서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청조의 중국대륙 정복-지배는 만주족 자체의 자멸을 초래했고, 청 제국의 강역은 한족 중화 제국이 통째로 물려받았다. 만주 대륙은 한족의 대량 유입으로 매몰되었다.¹³

중국대륙-몽골초원-만주라는 3국-무대에서의 작용과 반작용은, 만주족에 뒤늦게 수동적으로 협력 한 외몽골의 몽골족과, 배불송유 이념에다 친명-반청의 정서가 지배하게 된 한반도 조선 조의 예맥 친족 후예들만 21세기 현재 동아시아 대륙에서 민족국가를 이루어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든 것이다. 서만주 초원의 몽골화한 거란선비 후예들을 포함 하는 내몽골 몽골 부족들은, 처음부터 만주족 정복왕조에 적극 협력을 하다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내몽골 자치구 속으로 사라졌다. 내몽골 초원은, 계획적으로 대량 이주 정착된 한족의 무분별한 영농개간으로 단기간에 표토(表土)를 상실해, 농업이나 목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해가 갈수록 황사 현상만을 악화시키고 있다.

만주족 정복왕조: 수적 열세와 농경-한족 통치기구 부재라는 취약점을 극복

전한-후한 전 기간(206 BCE-220 CE)에 걸쳐, 흉노나 선비족이나 모두 수적 열세와 통치기구 부재라는 약점 때문에 정복왕조 수립을 기피 하였다. 그 후, 돌궐족의 정복왕조 수립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족을 남 중국 오지로 밀어낸 5호16국 사태를 촉발한 흉노의 조(趙) 왕조는 실패로 끝났다.¹⁴ 전조(304-29)는 지나치게 중국식으로 접근을 했고 후조(319-52)는 지나치게 흉노식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이다. 5 대10국 당시,

¹³ 만주 총 인구는 1891년에 2천2백60만 명, 1942년에 4천6백80만 명으로 추계된다. Gottschang and Lary (2000: 172-3) 참조. 1990년에 와서는 만주 총인구가 1억을 초과 했지만, 만주족으로 등록된 주민은 1천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조선족으로 등록된 주민은 2백만 정도가 된다. Janhunen (1996: 39, 43, 47)

¹⁴ Eberhard (1965: 122-4), Barfield (1989: 70, 91, 102), Graff (2002: 56-61) 참조. 전조의 장수로 319년에 후조(수도 鄴城)를 세우고, 329년에 전조(劉淵-劉聰/수도平陽/漢 304-18; 劉曜/수도長安/前趙 318-29)를 병합한 석勒(石勒 r.319-33)은 흔히 갈(羯)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갈족은 흉노(돌궐)족의 한 분파 이다.

사타(沙陀) 돌궐 왕조(唐番漢 923-36-46-50)는 황제 직할 금군(禁軍)을 지나 치계 한족으로 충원시키다 보니 마침내 한족 사령관 손에 축출되어 한족 후주(後周 951-60/뒤이어 한족 宋) 왕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모용 선비를 효시로, 서 만주 선비족들은 소위 “한족을 한족으로 다스린다”는 이한치한책(以漢治 漢策)에 입각한 2원통치 조직을 개발해, 수적인 열세와 통치기구 부재라는 취약점을 모두 극복하고 정복왕조를 수립할 수 있었다. 만주 출신 정복왕조 창건자들은, 신생 국가에 충만한 폭발적인 기세를 몰아, 자신들 고유의 부족 적 전통에 입각한 국민개병(皆兵) 병민일치(兵民一致) 군사조직을 우선 중앙 집권화하고 독점하면서, 피정복 한족은 (자신의 부족들과 분리해서) 한족 관료들을 임용해 별도로 유교적인 관료 제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2원적 통치조직을 제도화하여 정복왕조를 수립했다.¹⁵ 이와 같이 특이한 제도 구축의 실패는 정복왕조 수립의 실패를 의미한다. 반면, 지나친 중국화와 (군사력의 기반인) 부족 전통의 와해는 정복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게 된다.

동돌궐(553-630/682-741)과 위구르(744-840) 제국을 세운 돌궐족들은 뒤늦게나마 모용-탁발 등 선비족을 모방해 수적 열세, 통치조직 부재 등의 취약점들을 제도적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고, 과거 흥노가 하던 대로, 갈취에 만족했다.

만주족 정복왕조 2원 통치 형태의 진화

역사에는 반복적인 행태와 진화적인 추세가 혼재한다. 올바른 분석의 틀은 관찰된 과거 역사적 사실의 합리적인 설명뿐 아니라 미래의 진화 성격도 예측 가능케 한다.

서 만주 모용선비는, 북 중국을 점령하기 이전에, 요동 주변에 거주 하던, 혹은

¹⁵ Barfield (1989: 97-8, 104, 110, 167) 참조. Barfield(1989: 9, 19, 230)에 의하면, 몽골 초원과 중국 대륙은 자연적, 문화적 환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질 적이기 때문에, 농경-정주의 한족 왕조와 초원의 유목 왕조가 “화친/조공” 형태로 갈취 행위를 포장해 공존이 가능 했고, 또 흥망성쇠를 같이했다. 하지만 소위 만주의 동북 평원과 중국의 화북-장강중하류(華北-長江中下流) 평원 사이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 서부 만주는 상당히 유목민적이고 동부 만주는 삼림이 울창 하지만, 중부 만주의 송화강-요하 유역에서는 수 천년 전부터 수수와 메밀을 재배해왔다. 따라서 만주의 소위 “야만인”들은 농경-정주민의 존재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한족 왕조와 (갈취자로서 한족을 보호 해주며) 현상 유지를 원하는 몽골 초원의 세력이 동시에 쇠약해질 때 마다 중국 대륙을 정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why”보다는 “how”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한다.

본토에서 피난을 해 온 한족 전직 관료, 학자 등을 포섭-임용하여 피정복 한족 농민을 다스리는 중국식 관료조직을 완비했다. 부족 전통의 군대는 최고 통치자의 형제, 아들, 조카들이 지휘했다.

탁발선비는 부족(國人)과 한족을 격리하여, 국민개병 군사조직으로 황제 직할 중앙군과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북부초원 부족들의 거주 지역은 부족식(國制)으로 다스리고, 북 중국 평원의 한족 밀집 지역은 토착 대지주 호족들로부터 선발된 하급 관리들이, 고위직 선비 귀족의 지휘를 받으면서, 한족식으로 다스렸다. 선비족의 전통신앙인 샤머니즘은 무식한 한족 하층민들의 미신과 마찬가지로 보였기 때문에 정복자의 공식적인 종교로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통치 이념으로 유교사상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사상적인 굴복을 의미했다. 탁발 선비는 서방에서 도입된지 얼마 안 되는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 들이고 황제를 부처의 현신으로 미화했다. 정복왕조 고유의 탈-유교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외래 종교인 불교를 적극 장려했던 것이다.

탁발선비 북위-서위-북주의 후계자로 중국을 통일한 수와 당은 일찍이 선비 정복왕조들 통치 하에 그 실효성이 증명된 (선비 세습귀족의 지휘-감독을 받는) 한족 관료 체제, 균전제, 부병제 등을 통일 중국 현실에 맞도록 개량-강화하고, 통치 이념으로서의 불교를 계속 장려했다. 뿐만 아니라, 전한 -후한 (206 BCE-220 CE) 때 비정기적 천거-임용 관행을 보조했던 시험(察舉) 제도를, 역사상 최초로, 제한된 규모로나마 정기적으로 시행 되는 "과거(科擧) 제도"로 만들어, 1905년까지 내용상의 변화를 거듭하며 중국대륙의 통치 제도를 상징하게 했다.

거란족의 요 왕조는, 별도의 명칭을 가진 2개의 정부 조직을 가지고 (거란 귀족이 國制로 다스리는) 부족과 (거란 세습귀족의 통제하에 한족 관리가 漢制로 다스리는) 한족을 분리 통치하면서, 거란족이 황제직할 오르도 군대와 부족단위 군대를 모두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통치체제로 진화시켰다.

동 만주 여진족은 부족 전통에 입각한 병민일치 범-사회군사 "맹안-모우케" 체제로 부족을 모두 조직-동원하고, 정복 한족은 (여진족 세습귀족 통제하에 요 보다) 확대된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된 한족 관료를 통해 다스리는 체제로 진화시켰다.

서 만주 여진족의 "맹안-모우케" 병민일치 조직은, 거란족을 흡수하고 돌궐족을 협력자로 동원한 몽골 제국에 전수되어, Pax Mongolica를 실현한다. 하지만 한족으로 한족을 통치하는 완충장치를 훼손 한 원 제국은, 정복왕조 최초로, 유생(儒生)의 지지를 받는 농민 반란에 의해 축출된다.

내몽골의 몽골족을 포섭한 범-만주 청 왕조는 여진족 금 왕조 보다 한층 더 부족적 전통에 충실 하면서도 중앙집권화된 군사조직을 확립하는 동시에 이한치한(以漢治漢) 원칙을 강조 해 Pax Manjurica를 실현했다. 만주족의 8기(八旗) 제도는 3국-동아시아의 최후를 장식한 병민일체 범-사회 군사 조직의 최종적 진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민족 정복왕조의 충성스런 협력자로서 한족을 통치할 한족 관료와 향촌 지도자들을 선발하는 청조의 과거 제도는, 한족 송-명 왕조보다도 대지주 사족들을 한층 더 정주도학(程朱道學) 틀에 묶어맨 최종적 진화 형태가 된다.

수-당이 도입한 시부(詩賦) 중심의 과거제도는, 정복왕조의 세습귀족 지배층이 한족 송-명 왕조에 와서 대지주 사족 출신의 사대부 지배층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제도적 촉매 역할을 했다. 탁발선비 정복왕조가 통치 이념으로 적극 도입한 불교 사상은, 한족의 전통적 도교-유교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주어, 송 대에 와서 정주도학(Neo-Confucianism)을 탄생시키고, 이는 한족 명 왕조 과거제도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반면, 요-금-원-청 정복왕조에서는, 유교적인 과거제도가 이한치한의 도구로 사용 되었을 뿐, 샤머니즘이 가미된 불교를 숭상하는 세습귀족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352년 이후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만주족 정복왕조의 구성원과 그 통치문화가 우월한 "피정복" 한족과 그 문화에 모조리 흡수-동화되어 "매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모순된 얘기는,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 일관성을 무시한 창작인 것이다. 비현실적인 개념 정립은 비현실적인 분석의 틀을 낳고, 비현실적인 인과관계의 설정은, 모델(model)의 역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상실케 하는 것 이다.

Appendix 2. 목돌의 흉노제국과 한족 전한(前漢)과의 관계

선사시대에 인도 북부와 이란에 정착 했던 아리안족은 서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갔다. 아리안족은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 계곡으로 내려와 모헨조다로의 드라비다 문명을 파괴해 버렸다. 그 잔혹상은 옛 인도의 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아리안족은 기원전 7세기부터 3세기 기간 중에는 스키타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이후에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 남부 러시아와 시베리아 서부의 목초지대를 점거했다. 몽골고원의 흉노족부터 시작해 후대에 투르크와 몽골 족들이 계속 서방으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리안족과의 혼혈이 심화되었다. 난폭한 관행 탓에 역사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 보다 유전적 유동성이 훨씬 높았다.¹⁶ 기하학적 형상으로 정형화된 스키타이 동물 예술품은, 동물 형상을 주제로 정형화된 오르도스 흉노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모두 신변 장식용이었다. 스키타이족과 흉노족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며, 고기만을 먹고, 천막 속의 모피 위에서 잠을 자며, 술잔으로 쓰기 위해 적의 두개골을 사냥했다.

아리안 계통 유목민에 속하는 월지국(月氏國) 사람들은 목돌(冒頓 r.209-174 BCE)에 의해 감숙성(甘肅省)에서 내몰려, 기원전 160년경에 (옛 그리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세운) 박트리아 왕국과 접경한 페르가나 지역으로까지 달아날 수 밖에 없었으나, 1세기경에 와서는 아프카니스탄의 카불과 인도 북서부를 포함하는 쿠산 왕조를 세울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초원의 한쪽 끝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 밀리게 되면, 그 결과 예기치 않은 연쇄 반응이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족 조정에 대한 흉노의 갈취 행위는 화친(和親) 정책 혹은 조공(朝貢) 관계 등과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 포장 이 되었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칭호의 수여, 다양한 공물(貢物)의 제공, 보조금 성격의 국경 무역, 등을 대가로 하는 평화조약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중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 흉노의 지배자는 자신 휘하의 모든 부족장들에게 충성의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수입과 사치품들을 확보했고, 일반 유목민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을 할 수 있는 국경 무역 기회를 제공했다. 흉노가 획득한 엄청난 양의 비단은 소그드족과 파르티안, 인도 상인 등 중개상을 통해 당시 로마에까지 도달하였다. 중앙집권화된 흉노제국에서는 작은 부족장들이 중국 조정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고, 최고 통치자가 조공제도를 홀로 장악하였다. 대선우는 매년 증가하는 한족으로부터의 조공 수입을 부하 부족장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그들로부터 지속적인 충성을 확보했다.¹⁷

사기 흉노열전을 본다. 기원전 174년, 목돌이 죽자 아들 계육이 선우 자리에 올랐다. 한 효문제(孝文帝 r.179-157 BCE)는 중실의 딸을 입양하고 중항열(中行說)에게 시중(侍)을 들게 하여 선우에게 보냈다. 중항열은 선우가 총애하는 모사(謀士)가 되어, "흉노 인구가 한 나라의 군 하나에도

¹⁶ Cavalli-Sforza (2000: 82)

¹⁷ Barfield(1989: 248)는 한족 조정이 현상 유지를 원하는 유목제국으로부터 종종 군사적 도움을 받아 내부 반란을 진압하거나 혹은 다른 외적의 침입을 격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미치지 못하지만 강한 이유는 먹고 입는 것을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비단-무명 옷이 털-가죽 옷만 못하다는 것과 한 나라 먹거리가 젓과 유제품만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선우에게 밤낮으로 한 나라 침공에 유리한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계책을 올렸다. 중항열은 이민족에 적극 협력한 한족 모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정사에 자세히 기록이 된 경우일 것이다.¹⁸

전한 무제(武帝)는 기원전 133년에 유화정책을 폐기하고, 117년에는 흉노를 공격하여 몽골 초원 북부로 내쫓았다. 기원전 111년에 중국대륙 남부 연안의 절강, 복건, 광둥 지역 등을 정복하고, 광서와 베트남의 북쪽 지역까지 진출하여, 대대적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한나라 군대는, 투르크스탄의 도시 국가들로부터 흉노가 징수하는 수입원을 차단해 흉노의 오른팔을 자르기 위해, 타림 분지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였다.¹⁹ 무제는 또 흉노의 왼팔을 잘라버린다고 하며, 기원전 109-108년에 고조선을 정복하고, 요하 하류 유역과 한반도 서북쪽 해안지대에 한 사군을 설치하였다.²⁰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복 한 이래 한족들이 정착을 시작한 요하 유역은, 중국이 무정부 상태의 혼란기에 빠지면 제일 먼저 중원의 한족 통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지역이 되었다.²¹

공세적인 군사 전략은 무관과 상인들의 출세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에, 유교 전통으로 훈련된 중국 조정의 문관들은 이를 반대하였다.²² 문신들은 진시황과 한무제가, 쉽게 평정 할 수도 없

¹⁸ 史記 卷第一百十 匈奴列傳 第五十 孝文...前六年[174 BCE] 漢遣匈奴書曰 漢與匈奴約爲兄弟...倍約離...常在匈奴...冒頓死 子...立...孝文皇帝復遣宗室女公主爲單于閼氏 使宦官者燕人中行說傳公主...因降單于...甚親幸之 初匈奴好漢繒絮食物 中行說曰 匈奴人衆不能當漢之一郡 然所以疆者 以衣食異...變俗好漢物 漢物不過什二 則匈奴盡歸於漢矣 其得漢繒絮 以馳草棘中 衣袴皆裂敝 以示不如旃裘之完善也 得漢食物皆去之 以示不如...酪之便美也 ...日夜教單于候利害處...後二年[162 BCE] 先帝制 長城以北 引弓之國 受命單于 長城以內 冠帶之室 朕亦制之

¹⁹ Barfield (1989: 54) 참조.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산맥의 2 만 피트가 넘는 고지에서 눈이 녹아 타클라마칸 분지로 흘러내린 물은 관개 수로를 통해 오아시스들을 형성한다. 여름에는 더 많은 눈이 녹기 때문에 농사에 충분한 물이 공급된다.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은 모두 배후에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광물을 채굴할 수 있으며, 알파인 목초지에서 가축도 기를 수 있었다. Lattimore (1944: 47-4) 참조.

²⁰ Janhunen(1996: 194)에 의하면, 중국 정권을 대표 해 한반도와 만주로 이주해 온 한족 관료, 군인, 상인, 농민들은 그 불안정적 특성 때문에, 결국에는 모국으로의 귀환이 강요되거나, 아니면 주변 야만인들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 요동 땅은 한족과 토착 문화의 유동적인 요소가 정치적 경제적 흐름에 따라 소용돌이치는 “저수지(reservoir)”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한족은, 문화적인 카멜레온이 되어, 그때 그때의 형세에 따라 유리한대로 여진, 선비, 몽골, 혹은 한국인과 융화되었다. Crossley (1999: 46-49) 참조.

²¹ Barfield (1989: 105)

²² Jagchid and Symons (1989: 54)

고, 중국에 편입시킬 수도 없는 메마른 땅을 놓고 흉노와 벌인 전쟁을 아주 졸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조공 형식으로 포장한 유화 정책을 통해 화평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문관들은, 유목민들과 끊임없이 싸우기 보다는 그들에게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우월한 전략이라고 믿었다.²³

후세 사가들 역시 무제가 순간적인 영광을 쫓느라 재정과 국가경제를 파탄시켰다고 비난하였다. 무제는 대규모의 군대를 먹여 살리고, 막대한 전비를 지출하고, 또 전승한 장군들을 승진시켜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광활한 초원 위에서 유목민을 추적하는 군대에 식량과 군수품을 보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 지출을 의미하였다. 한 무제 방식으로 초원 지대를 정벌한다는 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도박인 것이었다. 평화조약은 그럴 듯 하게 들리는 칭호의 수여, 다양한 공물의 제공, 보조금적 국경무역을 대가로 안전한 국경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후대의 한족 지배자는 이런 식으로 흉노를 매수하는 것이 국경에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야만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값싸다고 믿게 되었다.

화친-조공 관계를 통해 만리장성이 흉노와 한족 양 제국간의 국경으로 인정되었다. 대략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졌던 것으로 추산되는 한(漢) 제국은, 백만 명 내외의 유목민 제국과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대치했던 것이다.²⁴

²³ Barfield (1989: 246-249)

²⁴ Barfield(1989: 49)와 Janhunen(1996: 180)을 참조. Barfield(1989: 28)에 의하면,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들이 700여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단일 혈통의 터키 왕조가 오토만 제국을 600여 년 동안 지배했던 것처럼, 목동의 직계 후손들은 다양한 크기의 역량과 지위를 가지고 600여 년에 걸쳐 유라시아 목초지대를 지배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와 군사 기술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자, 모든 유목민들은, 제정 러시아의 카자크 기병대의 운명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 정주-농경 제국에 흡수, 예속되었다.